

한국 교회의 사회봉사와 디아코니아 신학

박 종 삼 목사

월드비전 한국 회장

승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명예교수

덕수교회 사회봉사 지도목사

I. 서론

1. 한국교회의 본질적 사명과 사회봉사의 문제

한국교회는 지난 선교 1세기 동안 민족의 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교회의 열정적 복음선교로 인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1천여 만 명의 신도와 5만 개에 가까운 교회로 성장했으며, 세계 선교를 위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한국교회의 성장은 한국교회가 본질적이고 전통적인 교회의 사명인 전도, 교육, 봉사 그리고 친교를 통해 주님의 복음을 성실히 증거하고, 그 선포된 복음을 지역사회와 한국 사회에서 교회봉사를 실천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중에서도 전도를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으로 오랫동안 인식해왔고, 여기에 교회의 온 힘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 결과 많은 전통종교의 저항을 극복하며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었고,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한국선교 1세기를 맞이하는 1980년대에 이르러 한국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종교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급성장한 교회로 주목을 받기에 이르렀다. 교회 성장의 열정이 한국교회 선교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루게 되었다. 교회 건물이 확장되고, 교회 조직이 성장의 기능에 부합되게 구성되었으며, 교회의 예배 형식과 프로그램 개발이 교회 성장 정책에 맞게 조정되었다.

급속한 한국교회의 성장은 한국 교인들로 하여금 강력한 선교활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국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계속 전도에 힘쓰게 하였다. 정말 멀지 않은 장래에 온 백성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며 교회의 수는 계속 증가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에 매진하였다.

그런데 1990년대에 이르러 한국교회 성장속도가 예측했던 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둔화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교인의 수가 줄어드는 교회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목회자들, 신학자들, 의식있는 교회지도자들 사이에서 한국교회 성장속도의 둔화와 교인수의 축소 경향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진지한 연구와 토론이 시작되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교회가 내포하고 있던 중요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연구와 논의는 성경적, 신학적, 교회사적, 경제·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다각도로 접근되었기 때문에 연구와 논의의 결과에 대한 의견의 일치가 어렵지 않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한국교회 성장의 둔화원인은 한국교회가 지니고 있던 문제점들을 인식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드러난 문제점들 중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든다면, 한국교회 성장이 양적인 측면에 치우쳐 질적인 성장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당시 경제개발 제일주의를 부르짖던 정부나 세속사회의 자본주의 성장제일주의 가치나 문화가 영적 공동체인 교회 속으로 스며들어 영성을 상실한 세속적 교회성장 경향에 빠져 있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자성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이런 연구와 논의에서 발견된 현상 중 하나는 모든 교회의 성장이 둔화된 것이 아니고 소수이지만 몇 개의 교회는 계속 성장해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요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중 본 강연에서 주목할 한 가지 요인은 교회들이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 복음을 전파(전도)할 뿐만 아니라, 그 선포된 복음의 말씀대로 주민의 궁핍과 고난과 약함을 뚜렷이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봉사(디아코니아, Diakonia)를 꾸준히 해왔다는 것이다. 이런 교회들은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교회봉사 사역을 지역선교의 핵심으로 삼고 있었다.

한국교회의 성장둔화 현상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는 경고카드(yellow card)였다고 보며, 복음을 실천하고 봉사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고 본다.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을 위해 전도에 힘쓰면서도 사회를 위한 봉사를 게을리 하고 있다는 성령의 경고는 교회 공동체 내부와 사회를 통해 계속 듣고, 신앙적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전파에서 “전도와 봉사”가 핵심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본다. 교회는 복음에 입각한 봉사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임을 깨닫게 되었고, 대다수의 교회가 사회봉사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나 사회의 취약계층,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교회봉사를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한다.

2. 21세기 한국교회 사회봉사가 당면한 문제들

지난 1990년대를 계기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교회사회봉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적으로 깊이 이해하고, 보다 강력하게 복음을 지역사회에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다는 “신앙과 삶의 일치”를 체험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지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고통을 돕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독교인의 봉사를 통해 전달되어지고, 그 결과 복음의 능력이 지역주민과 그들의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를 어떻게 변화(transformation)시키고 있는지를 목격하고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생활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는 영적 성장도 체험하게 되었다.

기독교 사회적 기능과 의미, 교회의 지역사회적 봉사 기능과 그에 따른 영적 변화의 의미, 교회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기대와 의존(역할 분담), 소외된 계층을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 생명안전망으로써 교회의 기능, 가난하고 소외된 민중의 대변자로서 교회의 선지자적 기능 등 한국교회의 사회봉사적 복음 활동은 21세기에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통로를 열어주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에 걸쳐 교회가 사회봉사를 시작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당면한 문제점들을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사회봉사의

복음적 기능이 축소되거나 왜곡 또는 곡해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본 강의는 이런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그 성격, 원인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각도에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 복음의 핵심으로써의 사회봉사를 신앙적 차원에서 수용하기 위해 교회사회봉사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신학적 이해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디아코니아 신학을 올바로 연구하고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패러다임(paradigm)을 창출하여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2) 교회사회봉사가 지금까지의 교회성장의 전략이나 전도의 전술로써 사용되지 않고 교회의 사회봉사 자체가 복음의 핵심으로써 “말씀의 전도”가 “봉사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영적 구원의 능력 곧 영적 변화까지도 이르게 하는 디아코니아가 되도록 해야 한다.

3) 교회의 사회봉사와 교회 밖의 사회복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명히 하고 교회가 실시하는 사회봉사의 영성을 분명히 정립함으로써 그 기독교적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유지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4) 교회사회봉사가 전문사회복지(사회사업)로부터 봉사(복지)의 이론과 방법,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서 기독교적 영성의 차원에서 교회 밖의 전문사회복지계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

5) 교회사회봉사는 같은 사회 속의 문제들, 지역사회의 문제들, 주민들의 문제들을 사회와 함께 기독교계가 공동으로 대처하고 해결해 나간다는 맥락에서 교회의 일치(에큐메니칼)와 동반사역(Partnership Ministry) 등 사회선교에 관한 정책·전략·전술이 모색되어야 한다.

6) 한국교회 사회봉사를 21세기의 핵심적 선교로 받아들여려고 한다면 교회의 구조조정(총회·노회·개교회·특수기관 등)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며, 특히 교회사회봉사 전문요원(예: 디아콘, 교회사회사업가, 교회복지목사 등)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의 교회선교 제도는 주로 전도지향적 제도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교회사회봉사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를 활성화하려면 교회는 사회봉사관련 기독교 기관·단체들(예: 기독교병원, 기독교 학교, 기독교 사회복지기관, 기독교 NGO, 기독교 사회봉사 연구기관 등)과 선교기능적 협약관계를 맺고 사회선교적 차원에서 공동전략을 펼쳐야 한다.

8) 교회의 사회봉사는 국가적(정부적), 사회적, 전문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국민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 사회적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소외된 계층,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안전망, 생명안전망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회선교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

9) 한국교회의 사회봉사는 교회의 “선행”을 사회에 자랑하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외된 한국 국민을 위해 교회의 사회봉사를 통해 구호·개발·옹호사역(Ministries of

Relief, Development and Advocacy)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도래하고 있는지를 세상에 증거하기 위한 교회사회봉사의 홍보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II. 한국교회 사회봉사와 디아코니아 신학

한국교회는 복음전파의 핵심을 전도에 두고 사회봉사는 복음의 핵심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와 신학교에서 봉사신학 특히 디아코니아 신학을 정립하거나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것은 교회의 사회선교적 차원에서 큰 약점을 나타내게 되었고, 1990년대에 시작된 교회 성장의 둔화현상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봉사신학을 정립하려는 운동이 목회자들 사이에서, 특히 사회복지를 전공한 기독교 전문사회복지 학자들과 사회복지 전문요원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기독교 사회복지학회, 교회사회사업학회, 기독교 사회복지협회, 한국교회 사회봉사연구소 등 다양한 단체와 기관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특별히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기독교 계통 대학, 신학교 등에서 사회봉사에 관한 봉사신학(디아코니아 신학)을 연구하여 이론적 정립과 실천모델을 제시하려는 등 일련의 노력들이 지난 20여 년간 계속되어 왔다.

여기에서 “교회사회사업”이라는 교회사회봉사의 전문영역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것과 함께 교회사회봉사의 기독교적·사회복지적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견주되었다. 교회사회사업의 개념정립에서 봉착하게 된 “유사관련 개념체계”에 관한 본 강사의 견해를 이곳에 첨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사려되어 소개하고자 한다.

1. 교회사회사업의 유사관련 개념체계

교회사회사업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혼란을 초래시키는 요인들 중 하나는 교회사회사업이 유사 개념체계와 혼용하거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교회사회사업이라는 용어와 함께 기독교 사회사업, 기독교 사회복지, 교회사회복지, 교회사회봉사, 교회사회선교, 교회사회사목(Church Social Ministry) 등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사회사업을 교회에 정착시키는데 큰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교회사회사업과 관련된 유사관련 개념체계의 출현은 교회와 관련된 신학체계와 사회사업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에 유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사업이라는 용어가 사회복지라는 법정용어로 된 후에 사회사업의 전문적 정체성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사회사업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념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때 기독교사회복지(Christian Social Welfare)라는 용어를 거시적 차원에서 사용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회사업을 표현할 때는 교회사회사업(Church Social Work)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교회사회사업의 개념정립을 돕기 위해 유사개념들을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한다.

1) 기독교사회복지(Christian Social Welfare)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이 사회적 책임 하에 이루어져 국민들의 행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이념이 “사회복지” 라고 이해될 때, 기독교사회복지는 기독교적 이념을 통하여 사회복지의 이념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사회복지의 가치, 이념, 철학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독교사회복지의 주창자들과 비기독교적 종교나 종교를 믿지 않는 사회복지 이념들 사이에는 갈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교회사회사업은 기독교사회복지의 이념을 공유하며 사회복지의 실천체계 기능을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사회사업가는 기독교 기관의 이념과 교회사회사업가라는 직능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교회사회사업가가 지니고 있는 사회사업가의 윤리강령과 지식과 방법론의 내용은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시켜 갈등을 일으키게 할 것이다. 또한 기독교사회복지의 실천체계인 교회사회사업을 통해서 사회복지의 효율적인 실천이나 기독교사회복지의 이념을 실천한다는 면에서 그 한계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사회복지와 교회사회사업은 그 개념상에서 면밀히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기독교사회사업(Christian Social Work)

기독교사회사업이란 기독교적 신념과 가치관을 구현하기 위하여 실천하는 사회사업을 말한다(이준우, 2001). 즉 기독교인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의 이념을 실천하는 사회사업이란 모두 기독교사회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기독교사회사업은 교회사회사업보다 폭넓은 개념이며 그 가치나 목적에서도 고유성을 지니고 있다.

교회사회사업이 기독교사회사업과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는 전문사회사업가로서의 가치나 목적이 기독교적 신념과 가치관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즉, 기독교적 신념과 가치 속에 사회사업의 가치와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이상의 복지적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교회사회사업가로 기독교사회사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에 근거한 전문사회사업 체계와의 관계에서는 신앙과 과학, 목적과 수단이라는 문제들이 야기된다.

3) 교회사회봉사(Christian Social Service)

교인들이 자신들이 맡은 신앙의 행동적 표현으로 교회라를 기관을 중심으로 사회(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relief), 개발(development), 옹호(advocacy) 등의 봉사를 의미한다. 교회사회봉사의 저변에는 종교적 신념이 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자신들의 신념체계(신앙체계)에 대한 대사회적 행동체계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교인들의 사회봉사는 전도, 자선, 선행 등의 동기가 강하게 나타나며, 사회사업의 가치나 목적과는 상이성이 많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교회의 사회봉사는 유대·기독교의 전통에 따라 오랜 교회역사와 함께 존속되어 왔고, 전문사회사업을 낳는 모태가 되었다(Johnson, 1941).

교회사회사업은 교회사회봉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보다 체계적, 조직적, 지속적, 전문적 봉사를 진행시키기 위하여 도입되는 전문사회사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교회사회사

업의 환경은 전문사회복지(사회사업) 기관이 아닌 교회의 사회봉사 곧 신학적 용어로 디아코니아(diakonia)가 실천기반을 이루고 있는 속에서 교회사회사업의 기능을 찾아야 한다.

4) 기독교사회목회(Christian Social Ministry)

교회의 목회자들은 교인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교회의 목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교회의 신학적 각성에서 기독교사회목회 신학이 생기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목회의 주된 형태는 사회봉사이며 이것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때 교회사회사업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데이비스(1983)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모든 이들을 위하여 정의를 추구하라는 좋은 소식(복음)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 의하여 실천되는 활동이다” 라고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교회의 독특한 봉사문화를 기독교적인 용어로 ‘목회’ (ministry)라고 정의한다. 교회사회사업은 이러한 기독교사회목회 또는 협의의 교회사회목회의 전통과는 구분되는 동시에 유사성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 속에서 교회사회사업의 고유한 기능을 발견해야 할 것이다.

5) 사회선교(Social Mission)

사회선교는 교회의 사회봉사(사회사업, 사회복지 등)를 선교적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개념으로 선교신학에 강한 영향을 받은 개념이다. 교회의 선교적 기능에서 전도와 봉사는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한다. 전도는 복음의 선포이고, 봉사는 선포된 복음의 사회적 실천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선교는 교회의 복음적 실천을 강조하여 구호적 봉사, 사회구조변화를 위한 봉사 등 구호, 개발, 옹호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경우 전문사회사업의 가치나 목적은 의미를 지니지 못하며, 교회사회사업은 효율적인 사회선교의 수단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다. 교회사회사업에서 사회선교의 실천적 측면을 수용함에 있어 사회행동(Social Action), 사회개혁(Social Reform)에서 그 의미를 높이 평가하려고 하며, 전문사회사업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2. 디아코니아 신학의 이해

한국교회의 봉사신학을 정립하려는 과정에서 교회 밖의 사회봉사(구제, 개발, 사회복지, 사업사업 등)의 개념과 복음적 사회봉사의 차별성을 발견하는 관계는 중요한 신학적 도전이 되었다. 사실 교회사회 봉사가 세속적 사회복지 내지 사회사업 이론에 흡수되어 기독교적 정책성이 모호해졌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교회의 사회봉사를 복음의 핵심으로 보지 않으려고 했던 보수신학 진영에게 사회봉사의 선교적 의미를 약화시킬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기 까지 한다.

이런 과정에서 사회봉사 신학의 성경적 기반을 굳게 두고 오랜 교회사의 맥락에서 봉사신학을 확립시킨 “디아코니아 신학”이 독일 교회를 통해 한국에 소개되기 시작했다. 특히 독일에서 연구 활동을 해 온 우리나라 신학자, 사회복지학자, 사회과학분야의 학자들(예: 이삼

열, 황금봉, 김덕환 등)을 통해 독일교회의 디아코니아 신학이론과 실천모델이 소개되기 시작했고 독일의 디아코니아 신학자들(T. Fliedner, F. Von Bodelschwingh, Loehe, K. F. Daiber)의 저서나 논문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학국교회와 독일 교회의 교환방문을 통해 디아코니아 신학에 한국교회가 접하게 되었다.

물론 국가의 강력한 보조를 받고 오랫동안 국가와 교회의 협력이 사회봉사를 통해 이루어져 온 전통적 기독교 문화권에서 나타난 독일의 디아코니아 신학을 한국에 적용하는 데는 많은 연구와 창의적인 응용력이 요구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신학의 성경적 이해를 독일의 디아코니아 신학과 디아코니아 이론 및 실천모델은 한국교회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1) 디아코니(Diakonie)의 개념

디아코니는 신약에서는 “가난한 자를 위한 도움, 목회”, 고대에서는 “삶의 현장에 존재하는 예수의 삶과 행위로서의 공동체”, 일반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적 행위”, 중세에서는 “수도원, 구조청 등을 통한 구호대책” 등으로 이해되고 실천되어 왔다. 19세기에 이르러서 독일은 이를 국내 선교(Innere Mission)로 이해하고 발전시켜 왔다. 더욱이 이 교회봉사의 개념은 1836년 테오도르 플리드너(Theodor Fliedner)에 의해 “디아코니센 자매공동체”(Diakonissen-Schwesterschaft)가 설립되어 개신교 수녀제도를 실시하게 되면서 체계화하고 교회의 전문직업으로서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1998, 황금봉).

제2차 세계대전 후 국가의 위기 상황 하에서 “디아콘은 돕는 직무, 그리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공동체”로 재인식되면서, 크게는 국내선교(알코올과 마약중독자, 절인, 여성, 고아, 어린이 등의 사회 전반적 문제)와 국외선교로서 개발도상국 원조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세계적인 기아, 전쟁국 원조, 그리고 제3세계권의 의식화 운동 등에 참여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1998, 황금봉).

우리가 여기서 봉사(Diakonia)라는 말을 쓸 때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정신에 따라서 이웃과 사회를 위해 하는 봉사를 말한다.

디아코니아(Diakonia)는 기독교적인 봉사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비록 봉사의 내용이 일반사회의 그것과 같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한다는 동기가 부여된 것을 봉사(디아코니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봉사의 근원이 되는 최초의 봉사자(Urdiakon)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행위로 나타난 모든 실천을 “디아코니아”(봉사)라는 말로 일반화시켜 표현했다(1991, Reinhard Turre).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교훈은 기독교가 아닌 타종교나 윤리 도덕가들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특히 그리스도의 봉사의 정신과 실천을 따라서 사회봉사를 하려는 또는 하고 있는 활동과 사업들을 일단 봉사의 범주에 넣고 기독교적인 사회봉사학(Diakonik)이 정립될 수 있다고 본다.

2) 디아콘과 디아코닌(DiaKon and DiaKonin)

이들은 독일교회 내에서 교회의 교회봉사 실천을 대표, 대면하는 교회봉사자들이다. 대부분 주총회(독일교회)소속의 전문적인 교회봉사의 정규교육과정(3년 내지 5년)을 통하여 배출되며, 졸업과 동시에 국가적인 승인과 아울러 교회의 승인을 받은 전문봉사자들이 된다.

이들의 교육 과정은 철저히 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 이해와 교회 이해를 중심으로 사회 복지 이론의 통달까지를 의미한다. 이들은 교회와 사회에서 각종의 전문상담, 교육, 심리, 보건, 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다양한 업무들을 맡아 행하여 디아코닌(여성봉사자)과 디아콘(남성봉사자)으로 불린다. 이 교회봉사의 전문직에는 남녀 모두가 동참하고 있으나 아직은 대부분 여성의 전문직으로 인식으로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1998, 황금봉).

3) 사회 구호적 봉사와 사회구조 개혁적 봉사

(1) 사회구호적 봉사

봉사(Diakonia)라는 것은 선교적이며 또한 포괄적인 의미와 개념을 갖고 있는데, 교회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봉사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 슬픈 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찾아다 위로하고 약간의 물질구호를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자선적인 봉사(Charity Service)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들이 봉사라는 이름 아래 추진했던 활동이나 사업들이 대체로 구제사업이나, 빈민, 노인, 고아, 환자들에 대한 구호사업이었다는데 연유된다. 또한 교회의 봉사가 주로 가난하고 결핍된 사람들에 도움과 구호의 손길을 베푸는 것으로 행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의 정신과 교훈에 따른 것이다(눅 10:25-37의 선한 사마리아인, 마 25:31-46의 최후의 심판 등).

교회사적으로 볼 때도 최초로 초대교회에 나타난 봉사활동이 구제사업이었고, 이를 전담키 위해서 집사(Diakone)제도가 생기게 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집사들에 의한 개인 구제만으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다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이미 4세기, 5세기의 로마제국내의 교회들이 가난한 고아, 환자, 노인들을 한 곳에 모아다 수용시설을 갖추고 돌보아주는 수용소(Hospital)제도를 도입했다. 이것이 곧 고아원, 병원, 양로원이 생기게 되는 유래였다.

교회의 봉사사업은 이러한 전통 위에서 늘 가난하고 고통당하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구호해주는 사업들로 발전했다. 병원, 고아원, 양로원 사업은 전형적인 봉사사업이었지만 그 밖에 난민구제사업, 피난민구호사업, 유치원, 청소년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미혼모시설, 교정시설 등으로 확대해 나갔다.

(2) 사회구조 개혁적 봉사

교회의 봉사의 개념이나 활동 내용은 교회사적 전통 속에서도 항상 사회구호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었다. 우선은 가난하고 병든 개인들을 돕고 돌보는 일이 급선무

였지만, 차츰 가난과 질병과 고통의 사회적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를 개선하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과 주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들은 교회의 에큐메니칼 운동에 영향을 주고, 사회구조를 개혁하는 봉사나 선교의 활동이 나타나는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였다. 사회복음(Social Gospel)운동이나 종교사회주의 운동, 책임사회(Responsible Society) 운동이 교회의 봉사활동을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사회선교적 봉사로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본다.

오늘날에는 세계교회의 에큐메니칼 운동과 제3세계의 교회들이 민족해방과 사회혁명 과정을 통해 해방신학적, 정치신학적 경험들을 갖게 되면서 봉사(Diakonia)의 문제를 구조개혁적인 사랑과 정의의 문제로 더욱 부각시키게 되었다.

(3) 자선적 사회봉사와 사회개혁봉사의 관계

기독교의 봉사는 개인에 대한 자선행위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 개혁적인 사랑으로도 나타나야 한다. 개인에 대한 구호적, 자선적 봉사와 사회개혁을 통한 구조적 봉사가 서로 대안적인 것으로 분리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가 바로 개인의 사랑과 사회정의 실현을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구호적인 봉사와 구조적인 봉사를 디아코니아 신학에서는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것이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다.

3. 통전적 선교 신학과 디아코니아 신학

한국교회에서 디아코니아 신학이 뿌리를 내려 교회의 사회봉사를 활발히 진행시키려고 한다면, 디아코니아 신학이 통전적 선교 신학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디아코니아 신학은 통전적 선교 신학의 복음적 정신을 교회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표현하게 하는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다.

통전적 선교(Wholistic Mission)는 전도와 사회봉사 책임의 실천을 불가분리적으로 포함한다. 전도와 사회봉사는 복음의 씨가 뿌려질 때 반드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선교” 현상으로, 이 두 요소는 하나가 다른 쪽에 종속되거나 의존하지 않고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동역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통전적 선교 신학의 개념은 $M=E+N+S(SS+SA)+F$ 라는 공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서정운, 1992). (M: Mission/선교, E: Evangelism/전도, N: Nurture/양육, S: Service/봉사, SS: Social Service/사회봉사, SA: Social Action/사회행동·구조적 개혁, F: Fellowship/친교)

이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도와 봉사인데, 이 둘은 마치 바지의 두 가랑이, 가위의 두 양날,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상호협력하여 작용함으로써 선교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교회의 경우, 전도는 이미 잘 하고 있으므로 선포되는 말씀을 실천에 옮기

는 봉사에 힘쓰면 된다.

디아코니아 신학은 “E+N”에 근거하여 복음의 동기를 얻고 “S(SS+SA)”의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고, 개인과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봉사와 개혁에 힘쓴다고 본다.

결국 통전적 신학에 입각한 선교모델은 디아코니아 신학을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주며, 이런 신학을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전도와 사회봉사의 그리스도적 명령을 새롭게 듣고 실천하게 된다고 본다. 결국 디아코니아 신학이란 가르치면서 행동했고, 설교하면서 구원의 활동을 전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로 알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전도와 봉사에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4. 디아코니아 신학과 생명·사랑·섬김의 신학

복음의 핵심적 사명은 인간구원에 있다. 곧 인간구원을 위한 복음이 전도와 봉사로 나타날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디아코니아 신학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그 복음을 인간구원을 위해 실현시킬 것인가의 질문이 생긴다.

성경에 나타난 인류의 구원을 위한 복음의 요소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생명의 존엄성이고, 둘째는 생명이 생명다워지기 위한 사랑의 능력이며, 셋째는 생명에 사랑을 먹여주는 봉사이다. 곧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독교인들이 섬기는 사역(ministry)이 곧 디아코니아의 실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길ियो 생명”이고, “생명의 떡”, “생명수”로 표현하심으로써,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다. 그리고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시고 섬기러 오셨다고 천명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사랑으로 섬기는 참 디아코니아의 복음을 정립해주셨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디아코니아 신학을 정립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 1) 생명의 디아코니아 신학
- 2) 사랑의 디아코니아 신학
- 3) 섬김의 디아코니아 신학

이 디아코니아 신학을 전문사회복지(사회사업)적 맥락에서 한국교회와 한국교인들에게 선교적 도전을 준다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디아코니아 과제가 나타나게 되리라고 본다.

- 1) 생명에 대한 강력한 디아코니아적 동기 유발(Motivation)
- 2)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디아코니아적 사랑의 능력 개발(Capacity)
- 3) 생명을 사랑으로 섬기는 디아코니아적 섬김의 기회 창출(Opportunity)

Ⅲ.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 실천 방향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인간구원 사역의 본을 따라서 복음의 선포(전도)와 선포된 복음의 실천(사회봉사)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 땅에 이룩하기 위한 신학적 기반으로 본 강 의에서는 교회의 통전적 선교 신학 맥락에서 디아코니아 신학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그리고 디아코니아 신학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 복음 안에서 변화시키며, 인간의 생명을 파멸하는 사회악을 변혁시켜 정의롭고 공평하며 평화로운 사회,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복음적 기능을 나타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생명의 디아코니아, 사랑의 디아코니아 그리고 섬김의 디아코니아를 제시하였다. 인간을 구원하는 역동적인 디아코니아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Diakon, Diakonin이 되어 생명 존중에 대한 그리스도의 강한 동기 유발,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 개발, 그리고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생명을 사랑으로 섬기는 디아코니아의 기회를 창출시켜야 함을 디아코니아 실천의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교회공동체의 디아코니아 실천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개교회, 노회, 총회, 에큐메니칼 공동체적 차원으로 접근해볼 수 있다.

첫째, 디아코니아의 주체로서의 교회의 사회봉사

둘째, 디아코니아의 객체로서의 지역주민과 교회의 사회봉사

셋째, 디아코니아의 전문체계로서의 교회의 사회봉사 전문요원과 사회봉사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 실천 신학의 접근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으로서 접근할 때 미시적인 구체적·구호적 사회봉사의 성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교단적·전 기독교계적 차원에서 접근할 때 거시적인 사회개혁, 정의구현 등 사회구조 개혁의 디아코니아가 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개교회적 차원에서 디아코니아의 실천 신학이 적용될 때, 구호적 디아코니아와 사회개혁적 디아코니아의 실천은 교회나 사회의 보수진영이나 급진진영의 오해를 유발하지 않고, 가장 효율적인 디아코니아 선교사역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교회의 디아코니아 실천은 개교인의 디아코니아 실천은 물론 교단과 전 기독교계의 디아코니아 실천과 연대를 맺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개인, 가정, 지역사회, 국가가 변화하여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정의로운 사회 곧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풍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디아코니아 선교의 방향은 교회의 디아코니아 비전(Vision)과 교회의 디아코니아 소명(Mission)과 교회의 디아코니아 목표(Goals)과 교회의 디아코니아 전략(Strategy)과 교회의 디아코니아 전술(Tactics)이 하나님 나라의 유기체로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다.